

# 평생교육 20년(1995-2014) 연구동향 분석

## - 『평생교육학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

윤옥한(국민대학교, 교수)\*

---

### 요약

---

이 연구는 ‘평생교육학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20년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 논문은 ‘평생교육학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총 531편이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학연구 논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평생교육 이론적 탐색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그 다음이 평생교육관련 제도개선이다. 셋째,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과목 연구영역별 분석 결과 필수과목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 넷째, 평생교육기관형태별 발표된 논문 분석 결과는 연구대상기관을 정확히 정하여 연구된 논문들은 3%이하로 나타났다. 다섯째, 평생교육 발달단계별 발표된 논문 분석결과 특별한 대상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연구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과제는 연구동향 분석시 분석틀의 다양화와 분석대상 학술지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

주제어: 평생교육학연구, 평생교육논문, 한국평생교육연구흐름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평생교육학과 관련된 학술지, 단행본, 박사학위논문의 수는 2000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매년 평생교육과 관련된 수 많은 연구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김진화, 고영화, 성

---

\*주저자: 윤옥한(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okaiyoon@kookmin.ac.kr)

수현, 2007; 곽삼근, 최윤정, 2005). 이렇게 폭발적인 평생교육관련 연구의 증가와 더불어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평생교육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위논문들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로(이지연, 2013; 이석진, 기영화, 김남숙, 2012; 김진화, 고영화, 성수현, 2007; 곽삼근, 최윤정, 2005)이 있고, 특정한 주제나 연구방법(예를 들면, 대학평생교육, 지역평생교육, 질적연구동향 등)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로(곽삼근, 박현옥, 김영석, 2014; 김현주, 2014; 정수연, 2014)들도 있다.

그러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 보는 연구는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관련 연구주제의 연구동향과 추후 연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는 장점이 있으나, 평생교육관련 분야의 전반적인 동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관련 학술지를 통해 연구동향을 살펴 본 연구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한 연구로(김진화, 고영화, 성수현, 2007; 곽삼근, 최윤정, 2005)이거나,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한 연구로(이지연, 2013; 최은수, 김성길, 허영숙, 박진홍, 2009)나 뉘어져 있어 평생교육학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평생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평생교육학연구’가 출발하였던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한 학문 분야에서 그동안 많이 수행되어 온 연구 주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학문의 자기 객관화 작업이다. 또한 전반적인 연구의 흐름을 분석 해 봄으로써 그동안 수행된 평생교육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실천영역 측면에서 지난 20년간 ‘평생교육학연구’의 흐름은 어떠하였는가?

둘째,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수강해야 할 과목을 중심으로 어느 과목과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가?

셋째,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형태 중 어느 기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가?

넷째, 평생교육대상 발달단계별, 특성별로 어떤 발달단계와 어떤 특성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가? 이다.

## II. 평생교육 관련 연구동향

평생교육 관련 연구동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평생교육법과 관련된 연구동향, 둘째, 평생교육관련 인접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동향, 셋째, 평생교육연구 중 ‘평생교육학연구’에 발표된 학술지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상 세 가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법과 관련된 연구동향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들은 법에 의해 시행되고,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접 학술지 연구동향의 경우, 등재된 학술지는 그 분야의 학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두 가지는 거시적 접근이라고 본다면, 평생교육연구 중 ‘평생교육학연구’에 발표된 학술지 연구동향분석은 미시적 접근이다. ‘평생교육학연구’에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는 것은 평생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평생교육법과 연관된 연구 흐름은 다음과 같다.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은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평생교육의 흐름을 변화시킨 동기가 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평생교육학 팽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평생교육정책의 변화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학점은행제, 독학사학위제, 시간제 학생등록, 사내대학, 원격교육 지원체제구축,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곽삼근, 최윤정, 2005).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2008년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2014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하였다. 이들 기관이 개원하기 이전에 많은 평생교육관련정책들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982년 사회교육연구실을 설치·운영하여 1986년 평생교육진흥방안 연구, 1990년 한국의 문해실태와 문해교육 연구, 1992년 평생교육체제의 정착 연구, 1997년 학점은행제 실시를 위한 사회교육기관 평가 연구, 1998년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열린교육체제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김용현, 정기수, 2013).

2000년 이후 평생교육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정책이 체계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교육학계는 물론 행정, 문화, 보건, 복지, 종교 등 거의 모든 사회영역 속에서 사회과학의 새로운 거시적 담론으로 평생교육이 확산되고 있다(김진화, 고영화, 성수현, 2007). 교육부가 2013년 9월에 발표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은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국가적인 행정체제로 정착되었으며 평생교육은 학문과 실천영역 분야의 활동이 다른 어떤 학문보다 발전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둘째, 학술지의 경우, 한국성인교육학회에서 발행하여 2004년에 등재된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한국 농·산업교육학회에서 발행하여 2004년에 등재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한국교육공학회에서 발행하여 2004년에 등재된 ‘교육공학연구’, 한국열린교육학회에서 발행하여 2005년에 등재된 ‘열린교육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에서 발행하여 2008년에 등재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한국기업교육학회에서 발행하여 2010년에 등재된 ‘기업교육연구’, 교육종합연구소에서 발행하여 2011년에 등재된 ‘교육종합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하여 2011년에 등재된 ‘평생학습사회’, 한국인력개발학회에서 발행하여 2012년에 등재된 ‘HRD연구’ 등 평생교육 관련학회들이 등장하여 학계의 주요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평생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술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평생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회지의 경우 2004년에 등재된 ‘Andragogy Today’, 2005년에 등재된 ‘열린교육연구’, 2011년에 등재된 ‘평생학습사회’가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평생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과 관련된 연구물의 경우, 1950년대부터 평생교육과 관련된 연구물들이 발행되었지만 주로 개론서와 같은 단행본이 많았다. 한국에서 사회교육형태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글교육이나 성인교육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미 군정기부터 사회교육이 전문용어로서 정책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시기를 한국 사회교육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최운실, 백은순, 최돈민, 1993). 그 이후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평생교육발전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시점이 한국 평생교육사의 한 획을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lifelong education’이 ‘평생교육’으로 번역되어 공식적으로 평생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평생교육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학술지는 많지 않다. ‘평생교육학연구’에 발표된 평생교육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곽삼근 외(2014)의 ‘대학평생교육 연구동향분석’, 곽삼근 외(2005)의 ‘학술지를 통해 본 한국 평생교육학의 연구동향’, 김진화 외(2007)의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 김영석(2014)의 ‘평생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동향분석’이 있다. 이 중 ‘평생교육학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평생교육 연구 동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논문인 곽삼근 외(2005), 김진화(2007)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곽삼근 외(2005)연구의 경우 주요 내용은 첫째, 지난 50년간 한국 평생교육학

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연구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둘째,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주요 학술지들의 논문들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한국 평생교육학 연구동향의 주요 특성들을 고찰하고 학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한국 평생교육분야의 대표적 학술지 세 개에서 총 395편의 논문을 선정 분석하였다. 연구 영역을 총 10개 영역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분석결과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평생교육학 학문연구와 방법연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화 외(2007)의 연구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개념과 영역에 대한 탐구,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의과정, 평생교육의 정책 및 실천에 대한 탐색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생교육학의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접학문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하며, 둘째, 평생교육학계는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평생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평생교육의 실천현장을 확장시키고 안정시켜야 하며, 셋째, 평생교육학 내부의 현상과 쟁점을 명확히 하고 재생산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론적 담론을 생성하고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하며, 넷째, 평생교육학계는 인적자원개발과의 관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협력적·공생적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평생교육학의 지속가능한 자생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독자적 연구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진화, 2007).

평생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네가지 즉, 평생교육실천영역,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과목, 비형식평생교육기관형태, 평생교육대상과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평생교육실천영역의 경우에만 곽삼근 외(2005)는 연구 영역을 총 10개 영역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분석결과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평생교육학 학문연구와 방법연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은 한국평생교육학회에서 1995년부터 2014년 발행한 ‘평생교육학연구’ 학술지 제1권 제1호부터 제20권 제2호에 게재된 논문 총 531편이었다.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외에도 단행본, 박사학위논문, ‘Andragogy Today’, ‘열린교육연구’, ‘평생학습사회’ 등 평생교육 관련학회에 게재된 논문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평생교육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평생교육학연구’ 학술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학술지는 한국평생교육 공동체를 대표하고, 게재된 논문은 평생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심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내 평생교육연구의 흐름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2. 분석 틀

한 학문이 정체성을 정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영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과 이를 토대로 실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독특한 원리와 이론들의 생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상을 포착하는 개념의 생성은 쉽지 않다(김진화 외, 2007).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은 평생교육 실천연구영역,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대상 세 가지이다. 평생교육 실천연구영역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평생교육 실천연구영역 첫번째는 김진화(2008)가 제시한 평생교육실천영역과 주요 내용을 저자가 수정·보완하여 제시한 것이다. 평생교육실천영역 중 아홉 번째 영역인 평생학습관련 제도개선 영역과, 열 번째 영역인 평생교육 이론적 탐색영역은 저자가 추가한 내용이다. 평생교육 실천연구영역 두번째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과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기관형태 중 준형식평생교육기관과 형식교육기관을 제외한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비형식교육기관에 대한 분류는 한국교육개발원(2012)에서 제시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평생교육대상의 경우 연령별과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연령별의 경우 유아(1-3), 아동(4-11), 청소년(12-18), 성인(19-60), 노

인(61-), 모든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평생교육특성별 대상으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을 분석하였다. 기타의 경우 특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 3. 분석 도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분석할 때 정확도, 간결도, 객관도, 신뢰도, 재현가능성, 타당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분석도구는 평생교육의 내용을 보존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로 평생교육의 이론적 관점을 함축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의 기본방향과 성격, 분석의 범위 및 수준을 고려하여 분류기준을 결정하였다. 분석틀에서 제시한 분류기준 3가지는 평생교육학 박사 3명과 평생교육학 관련 강의를 직접하고 있는 교수 3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분석틀에서 제시한 분류기준 3가지 외에 다른 분류기준으로 평생교육방법에 대하여 1명의 교수가 제시하였으나 분석틀로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또한 3가지 분석틀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시 김진화(2008)가 제시한 평생교육실천연구영역 세부내용의 경우 포괄적인 부분이 다소 부족하여 추가로 연구영역 내용을 수정 보완한 틀을 사용하였다. 평생교육실천 연구영역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수강해야 할 세부과목에 대한 분류와 평생교육기관의 분류기준은 명확하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다.

### 4. 자료 분석 절차

내용분석은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핵심적으로 포함한다. 첫째, 어떤 방식으로든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둘째, 표면적 정보의 단순한 기술이 아닌 그 이면의 심층 내용을 추론해내고자 하며, 셋째, 이 추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박양주, 우영희, 2012). 이러한 내용분석 세 가지요소를 정확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논문분류 코딩 작업은 본 논문의 저자와 연구자 2명이 직접 수행하였다. 또한 Poldner 외(2012)는 Rourke 와 Anderson(2004)이 제시한 내용분석시 연구자가 알고 있어야 할 요소를 논문분류 코딩 하는 본 논문의 저자와 연구자 2명이 함께 공유하였다. 그 공유 내용은 첫째, 분석의 목적을 3가지 분석틀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분류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인을 표상할 수 있는 특성 들을 논문제목과 논문내용으로 확인하였으며, 셋째, 분석 유목과 지표들을 전문가에게 검토 확인 하였으며, 넷째, 사전 코딩 분류 작업 연습과 실습에 의하여 분석틀의 적용과 해석을 잘 파악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논문제목에서 분류할 수 없는 부분은 논문 본문을 직접 확인하도록 사전에 공유하였고, 다섯째, 코딩 수행을 위한 지침을 명확히 하였다.

531편의 논문분류 코딩 작업은 본 논문 저자와 연구자 2명이 직접하였다.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분석의 주된 관심은 연구주제가 무엇인가이다. 연구자가 교보문고 스콜라(<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AcademyTree.laf>) 사이트에서 531편 논문제목을 보고 제목에서 명확히 코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분류기준에 따라 코딩을 하였다. 학회논문의 주제별 내용 분석은 1편 논문의 주제는 1-3개의 주요 개념으로 전환할수 있어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 체계화 하였다. 즉, 개념간의 유사성 정도, 개념의 포괄성 수준을 기준으로 유사성이 큰 개념집단을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둘째, 논문제목에서 코딩하기에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논문들은 원본을 한편씩 정독하여 검토하면서 코딩하였다. 왜냐하면 문장, 단락, 전체 메시지등의 고정단위의 경우 단위화의 신뢰도는 높지만 이론적 타당성은 적은 반면, 유동단위는 이론적 개념을 잘 드러내 주지만, 주관적이고 비일관적인 단위화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정현미, 양용칠, 2005).

셋째, 코딩시 연구분류 틀 즉, 평생교육실천연구영역, 평생교육기관형태, 평생교육대상 분류기준표를 옆에 두고 논문을 읽으면서 코딩을 하였다. 넷째, 코딩시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자와 연구자 2명이 상의하면서 코딩을 하였다. 다섯째, 1차 코딩작업 완료 후 코딩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1차코딩한 내용은 보지 않고 같은 내용을 다시한번 코딩하여 코딩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1차 코딩 때와 2차코딩 때의 오류가 있었다. 531편 중 연구영역분야에서 평생교육실천영역연구영역 18건, 평생교육자격증 이수과목영역 13건이 1차코딩때와 달라졌으며 평생교육기관형태 12건 평생교육발달단계별 대상 15건, 평생교육특성별 대상의 경우 5건으로 총63건(11.8%)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잘못된 코딩 부분은 전체 원문을 다시 확인하여 최종 코딩작업을 통하여 수정하였다.

## IV. 연구 결과 분석

### 1. 평생교육실천 연구영역별 분석

이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은 한국평생교육학회에서 1995년부터 2014년 제20권 제2호발행까지 분석하였다. 전체 논문수는 <표 1> 한국평생교육학회 논문현황과 같다.

<표 1> 한국평생교육학회 논문현황

사회교육학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995-1999	2000-2005	2006-2010	2011-2014 (20권2호까지)
87편(16.4)	158편(29.8)	181편(34.1)	105편(19.7)	531편

\* ( )안의 숫자는 5년 기간별 총 논문 수를 기준으로 %로 계산.

1995년 사회교육학연구라는 명칭으로 제1권 제1호가 발간되고 5년후 평생교육학연구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1995년에서 1999년까지 논문은 16.4%(87편), 2000년-2005년에는 29.8%(158편), 2011년-2014년 20권2호까지 19.7%(105편)으로 전체 531편이 발행되었다. 5년 단위 기간별로 발표된 논문 편수를 볼 때 논문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5년-1999년 5년동안의 논문편수를 보면 16.4%(87편)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2005년에는 29.8%(158편)이 발표되었다. 5년 동안 13%(71편)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교육학연구라는 명칭으로 발간되던 논문이 평생교육학연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부터 평생교육학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2006년-2010년에는 34.1%(181편)으로 5년전에 비하여 4.3%(23편)이 늘어났다. 이와같이 평생교육학연구논문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년 동안 평생교육학연구지에 발표된 531편의 논문을 평생교육실천 연구영역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평생교육실천 연구영역별 결과분석

실천영역	주요내용	1995-1999	2000-2005	2006-2010	2011-2014	전체
1. 학습상담 및 컨설팅	학습자 특성이해 학습자 상담의 원리 및 방법 평생학습 컨설팅의 원리와 방법	4 (4.7)	14 (8.9)	15 (8.4)	2 (2.8)	35 (6.6)
2. 학습동아리 조직 및 운영	학습동아리의 개념 및 의의 학습동아리의 유형 학습동아리의 운영원리 학습동아리의 조직화 원리	1 (1.1)	5 (3.2)	6 (3.4)	8 (7.5)	20 (3.9)
3.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의미 프로그램 운영의 원리 프로그램 운영의 영역 프로그램 운영의 방법	9 (10.4)	9 (5.7)	15 (8.4)	5 (4.6)	38 (7.1)
4. 평생교육 자료개발	평생교육 자료개발의 유형 매체개발의 선택과 원리 자료개발의 과정 자료개발의 방법 및 활용	0	0	4 (2.3)	1 (0.9)	5 (0.9)
5. 평생교육 강의 및 교수실천	평생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교수학습의 전개과정 교수실천의 실질적 기술 교수기법별 특징 및 활용	2 (2.2)	0	2 (0.2)	1 (0.9)	5 (0.9)
6. 디지털 학습촉진	디지털 평생학습의 개념 디지털 학습전략 디지털 학습양식 디지털 학습공동체 및 환경	3 (3.4)	4 (2.5)	5 (2.7)	5 (4.6)	17 (3.2)
7. 네트워킹 (외국, 지역사 회관련)	네트워킹의 필요성 네트워킹의 영역 네트워킹의 원리와 방법	8 (9.2)	4 (2.5)	21 (12.0)	12 (11.3)	45 (8.5)
8. 평생교육평가	평생교육 평가의 영역 평생교육 평가의 원리 평생교육 평가의 모델 평생교육 평가의 과정과 실제	4 (4.7)	3 (1.9)	15 (8.4)	3 (2.8)	25 (4.7)
9. 평생교육관련 제도 개선	평생교육관련 제도 개선 교육관련제도 개선 평생교육관련 개선 관련내용	21 (24.1)	63 (39.9)	40 (22.1)	13 (12.3)	137 (25.8)
10. 평생교육 이론적 탐색	평생교육 관련 이론적 탐색 일반적 교육관련 이론적 탐색	35 (40.2)	56 (35.4)	58 (32.1)	55 (52.3)	204 (38.4)
	합계	87 (100)	158 (100)	181 (100)	105 (100)	531 (100)

\* ( )안의 숫자는 5년 기간별 총 논문 수를 기준으로 %로 계산.

전체 논문의 평생교육실천 연구영역별 분포를 보면 평생교육 이론적 탐색 영역과 관련된 논문이 38.4%(204편)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학습관련 제도 개선 영역과 관련된 논문이 25.8%(137편), 네트워킹 영역 8.5%(45편), 프로그램운영 및 관리 영역 7.1%(38편), 학습상담 및 컨설팅 영역 6.6%(35편), 평생교육평가 영역 4.7%(25편), 학습동아리 조직 및 운영 영역 3.9%(20편), 디지털 학습촉진영역

3.2%(17편), 평생교육 자료개발 영역 0.9%(5편), 평생교육 강의 및 교수실천 영역 0.9%(5편)의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이론적 탐색과 평생학습 관련 제도 개선영역 둘을 합치면 64.2%(341편)가 된다. 평생교육 연구영역이 아직까지 평생교육의 이론적 탐색과 평생학습 관련 제도개선영역에 대한 연구가 많다.

5년 단위별 시간 흐름에 따라 평생교육실천 연구영역별 변화는 첫째, 학습상담 및 컨설팅 영역의 경우 1995년-1999년까지 4.7%(4편)이었던 논문이 2000년-2005년에는 8.9%(14편), 2006년-2010년에는 8.4%(15편)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학습동아리 조직 및 운영 영역의 경우 1995년-1999년까지 1.1%(1편)에서 2000년-2005년에는 3.2%(5편), 2006년에서 2010년에는 3.4%(6편), 2011년-2014년에는 7.5%(8편)으로 증가되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의 경우 1995년-1999년까지 10.4%(9편), 2000년-2005년 5.7%(9편), 2006년-2010년 8.4%(15편), 2011년-2014년 4.6%(5편)으로 시대에 따라 크게 변동이 없다.

넷째, 평생교육 자료개발 영역의 경우 1995년-2005년까지 1편도 없었으며, 2006년-2010년 2.3%(4편), 2011년-2014년 0.9%(1편)이 있다. 평생교육자료개발 영역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거의 없는 편이다. 다섯째, 평생교육 강의 및 교수실천 영역의 경우 1995년-1999년에 2.2%(2편), 2000년-2005년에는 없으며, 2006년-2010년에는 0.2%(2편), 2011년-2014년에는 0.9%(1편)이 있다. 평생교육 강의 및 교수실천 영역과 관련된 연구논문도 거의 없는 편이다. 여섯째, 디지털 학습촉진 영역의 경우 1995년-1999년에 3.4(3편), 2000년-2005년에 2.5%(4편), 2006년-2010년 2.7%(5편), 2011년-2014년 4.6%(5편)이 있다. 이 영역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2011년 이후 연구논문의 경우 1995년-2010년 보다 2배 높게 연구되고 있다. 일곱째, 네트워킹 영역의 경우 1995년-1999년에 9.2%(8편), 2000년-2005년에 2.5%(4편), 2006년-2010년에 12%(21편) 2011년-2014년에 11.3%(12편)이 있다. 네트워킹 영역의 경우 1995년-2005년 보다 2006년-2014년에 2배 이상의 논문이 나오고 있다. 여덟째, 평생교육평가 영역의 경우 1995년-1999년에 4.7%(4편), 2000년-2005년에 1.9%(3편), 2006년-2010년 8.4%(15편), 2011년-2014년에 2.8%(3편)이 있다. 아홉째, 평생학습관련 제도 개선 영역의 경우 1995년-1999년에 24.1%(21편), 2000년-2005년에 39.9%(63편), 2006년-2010년에 22.1%(40편), 2011년-2014년에 12.3%(13편)이 있다. 평생학습관련제도 영역의 경우 꾸준히 지속적으로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으나 2006년 이후부터 논문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열 번째, 평생교육 이

론적 탐색 영역의 경우 1995년-1999년에 40.2%(35편), 2000년-2005년에 35.4%(56편), 2006년-2010년에 32.1%(58편), 2011년-2014년 52.3%(55편)이 있다. 평생교육 이론적 탐색영역의 경우 꾸준히 지속적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평생교육 연구영역 중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영역이다.

평생교육실천 연구영역별 분석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과목 연구영역별 결과분석은 <표 3>과 같다.

<표 3>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과목 연구영역별 결과분석

실천 영역	주요내용	1995-1999	2000-2005	2006-2010	2011-2014	전체	
필수 과목	평생교육론(이념,이론)	16(18.4)	39(24.7)	31(17.1)	19(18.1)	105(19.7)	
	평생교육방법론	0	0	0	3(2.8)	3(0.6)	
	평생교육경영론(제도,평가)	25(28.8)	61(38.7)	75(41.4)	20(19.1)	181(34.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9(10.4)	8(5.0)	15(8.2)	9(8.6)	41(7.7)	
	평생교육실습	0	0	0	0	0	
	합계	50 (57.6)	108 (68.4)	121 (66.7)	51 (48.6)	330 (62.1)	
선택 영역	아동교육론	0	0	2(1.1)	1(0.9)	3(0.6)	
	청소년교육론	2(2.3)	0	10(5.5)	0	12(2.3)	
	여성교육론	3(3.5)	11(7.0)	3(1.7)	2(1.9)	19(3.6)	
	노인교육론	3(3.5)	5(3.2)	3(1.7)	2(1.9)	13(2.3)	
	시민교육론	12(13.8)	2(1.2)	2(1.1)	2(1.9)	18(3.4)	
	문자해독교육론	0	0	1(0.6)	7(6.7)	8(1.5)	
	특수교육론	0	0	0	0	0	
	성인학습 및 상담	0	16(10.1)	12(6.7)	6(5.8)	34(6.5)	
	합계	20 (23.1)	34 (21.5)	33 (18.4)	20 (19.1)	107 (20.2)	
	부 과 목	교육사회학	1(1.1)	0	0	0	1(0.2)
		교육공학	0	0	2(1.1)	0	2(0.3)
		교육복지론	2(2.3)	3(1.9)	1(0.6)	8(7.6)	14(2.7)
		지역사회학	1(1.1)	0	10(5.5)	11(10.4)	22(4.2)
		문화예술교육론	1(1.1)	0	0	6(5.8)	7(1.3)
		인적자원개발론	2(2.2)	6(3.8)	5(2.7)	0	13(2.5)
직업·진로설계		0	0	0	1(0.9)	1(0.2)	
원격교육론		3(3.5)	6(3.8)	7(3.8)	8(7.6)	24(4.6)	
기업교육론		4(4.6)	1(0.6)	0	0	5(0.9)	
환경교육론		1(1.1)	0	1(0.6)	0	2(0.3)	
교수설계		0	0	1(0.6)	0	1(0.2)	
교육조사방법론		2(2.3)	0	0	0	2(0.3)	
상담심리학		0	0	0	0	0	
합계		17 (19.3)	16 (10.1)	27 (14.9)	34 (32.3)	94 (17.7)	
합계	87 (100)	158 (100)	181 (100)	105 (100)	531 (100)		

\* ( )안의 숫자는 5년 기간별 총 논문 수를 기준으로 %로 계산.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과목 연구영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과목이 62.1%(330편), 선택과목 중 실천영역이 20.2%(107편), 방법영역이 17.7%(94편)으로 나타났다. 필수과목 중 평생교육경영론(제도,평가)이 34.1%(181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평생교육론(이념, 흐름, 이론)이 19.7%(105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이 7.7%(41편), 평생교육방법론이 0.6%(3편)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 중 실천영역의 경우 성인학습이 6.5%(34편) 가장 많았고 특수교육론은 한편도 없었다. 그 외 아동교육론 0.6%(3편), 청소년교육론 2.3%(12편), 여성교육론 3.6(19편), 노인교육론 2.3%(13편), 시민교육론 3.4%(18편), 문자해득교육론 1.5%(8편)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중 방법영역의 경우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이 4.6%(24편)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교육사회학 0.2%(1편), 교육공학 0.3%(2편), 교육복지론 2.7%(14편), 지역사회교육론 4.2%(22편), 문화예술교육론 1.3%(7편), 인적자원개발론 2.5%(13편), 직업·진로설계 0.2%(1편), 기업교육론 0.9%(5편), 환경교육론 0.3%(2편), 교수설계 0.2%(1편), 교육조사방법론 0.3%(2편), 상담심리학 0%로 나타났다.

5년 단위별 시간 흐름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과목 영역별 연구들의 변화를 보면 첫째, 필수과목으로 제시된 평생교육론과 평생교육경영론의 경우 꾸준히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평생교육방법론의 경우 1995년-2010년까지는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가 2011년-2014년에 2.8%(3편)이 발표되었으며, 평생교육실습의 경우 20년간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목의 경우 10%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택과목 중 실천영역으로 분류된 과목의 경우 성인학습 및 상담 과목의 경우 1995년-1999년에는 한편도 연구되지 않았으나 2000년-2014년까지 10%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시민교육론의 경우 1995년-1999년에는 13.8%(12편)이 발표되다가 2000년-2005년에는 1.2%(2편), 2006년-2010년 1.1%(2편), 2011년-2014년 1.9%(2편)으로 연구논문 발표수가 줄어 들었다. 문자해득론의 경우 1995년-2005년까지 10년동안 한편도 발표되지 않다가 2006년-2010년에 0.6%(1편), 2011년-2014년 6.7%(7편)이 발표되었다.

셋째, 선택과목 중 방법영역의 경우 교육복지론이 1995년-2010년까지 1%내외의 연구논문발표에서 2011년-2014년에 7.6%(8편)으로 증가하였다.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의 경우 1995년-2010년까지 3%내외의 논문발표에서 2011년-2014년 7.6%(8편)이 발표되었다. 인적자원개발론의 경우 1995년-2010년까지 2%내외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2011년-2014년에는 발표논문이 나오지 않았다. 그 외 한편도 발표되지 않은 과목영역의 논문은 상담심리학이었다.

## 2. 평생교육 기관형태별 분석

평생교육 기관형태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평생교육기관형태별 결과분석

구분	시설형태	1995-1999	2000-2005	2006-2010	2011-2014	전체	
비형식	부설형	유초중등 및 대학	10 (11.5)	16 (10.2)	9 (5.0)	6 (5.7)	41 (7.7)
		사업장	3(3.5)	0	1(0.5)	1(0.9)	5(0.9)
		언론기관	0	0	0	2(1.9)	2(0.4)
		시민단체	0	3(1.9)	1(0.5)	4(3.8)	8(1.5)
평생교육	독립형	지식·인력 개발형태	4(4.6)	13(8.3)	1(0.5)	3(2.8)	21(3.9)
		원격형태	1(1.1)	3(1.9)	6(3.3)	10(9.6)	20(3.8)
기	전담형	중앙	0	0	0	2(1.9)	2(0.4)
		시·도	0	1(0.6)	0	2(1.9)	3(0.5)
		시·군·구	0	1(0.6)	13(7.3)	2(1.9)	16(3.1)
관	복합형	학원	0	0	0	0	0
	기타	구분없음	69 (79.3)	121 (76.5)	150 (82.9)	73 (69.6)	413 (77.8)
합계		87 (100)	158 (100)	181 (100)	105 (100)	531 (100)	

\* ( )안의 숫자는 5년 기간별 총 논문 수를 기준으로 %로 계산

위 표에 나타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기관 형태별로 연구된 논문의 경우 첫째, 기관형태에 구분없이 공통에 해당하는 것이 77.8%(413편)으로 나타났다. 부설형 중 유·초·중·등 및 대학 부설이 7.7%(41편), 사업장 부설이 0.9%(5편), 언론기관 부설이 0.4%(2편), 시민단체 부설이 1.5%(8편)으로 나타났다. 독립형의 경우 지식·인력개발형태가 3.9%(21편), 원격형태가 3.8%(20편)으로 나타났다. 전담형의 경우 중앙이 0.4%(2편), 시·도가 0.5%(3편), 시·군·구가 3.1%(16편)으로 나타났다. 복합형인 학원은 발표된 논문이 없었다. 5년 단위 시간 흐름별 기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시민단체 부설에 대한 연구가 1995년-2010년까지 1%대

연구논문이 발표되다가 2011년-2014년에는 3.8%(4편)으로 나왔다. 또한 원격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는 1999년-2010년에는 3%이하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다가 2011년-2014년에는 9.6%(10편)이 발표되었다.

### 3. 평생교육 발달단계별 분석

평생교육 발달단계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평생교육발달단계별 결과분석

대상	나이	1995-1999	2000-2005	2006-2010	2011-2014	전체
유아	0-3	0	0	0	0	0
아동	4-11	1(1.1)	1(0.6)	0	1(0.9)	3(0.5)
청소년	12-18	4(4.6)	1(0.6)	3(1.7)	3(2.8)	11(2.1)
성인	19-60	26 (29.9)	52 (32.9)	44 (24.3)	9(8.6)	131 (24.8)
노인	61 이상	3(3.5)	6(3.8)	7(3.8)	9(8.6)	25(4.7)
기타	대상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53 (60.9)	98 (62.1)	127 (70.2)	83 (79.1)	361 (67.9)
합계		87 (100)	158 (100)	181 (100)	105 (100)	531 (100)
여성		3 (3.4)	11 (6.9)	11 (6.1)	6 (5.7)	31 (5.8)
장애인		0	0	1(0.5)	1(0.9)	2(0.3)
이주민		0	0	1(0.5)	4(3.8)	5(0.9)
합계		87 (100)	158 (100)	181 (100)	105 (100)	531 (100)

\* ( )안의 숫자는 5년 기간별 총 논문 수를 기준으로 %로 계산.

평생교육 발달단계별 분석 결과 첫째, 특별한 대상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연구가 67.9%(361편)가 가장 많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0.5%(3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1%(11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4.8%(131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7%(25편)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특성별로는 여성에 대한 연구가 5.8%(31편),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0.3%(2편),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0.9%(5편)으로 나타났다.

5년 단위별 시간흐름에 대한 특징으로는 성인에 대한 연구가 1995년-2010년까지 25%-30% 연구되던 것이 2011년-2014년에는 8.6%(9편)으로 감소된 것이 특징이다. 노인에 대한 연구는 1995년-2010년까지 3% 연구되던 것이 2011년-2014년에는 8.6%(9편)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대상 특성별로는 여성에 대한 연구는 20년간 3%-6%대로 꾸준히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장애인은 1995년-2005년에는 한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2006년-2014년사이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주민에 대한 연구도 1995년-2005년에는 한편도 발표되지 않던 논문이 2006년-2010년에는 0.5%(1편), 2011년-2014년 3.8%(4편)이 발표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연구는 한국평생교육학회에서 1995년 제1권 제1호부터 2014년 제20권 제2호 까지 발간된 ‘평생교육학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분석을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평생교육학회의 평생교육실천 연구영역별, 평생교육 기관형태별, 평생교육 연구대상별을 적용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해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논문을 보면 평생교육학연구 논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평생교육과 인접한 학회가 많이 창립되고 평생교육과 인접한 학술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학연구에 발표된 논문이 늘어나는 추세는 평생교육의 학문적 발전에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으며 한국교육이 평생교육·평생학습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평생교육학연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실천 연구영역 분석결과 평생교육 이론적 탐색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그 다음이 평생교육관련 제도개선이다. 이는 학술지가 ‘평생교육학연구’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논문발표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생교육자료개발영역과, 평생교육강의 및 교수실천영역의 논문들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평생교육 실천영역과 관련된 연구 비중을 보면 평생교육의 이론적 탐색과 평생학습 관련 제도개선영역에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평생교육학연구 발표논문들이 더 다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접학술지에서 비슷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수 있겠지만 평생교육실천 고유영역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평생교육자료개발, 평생교육 강의 및 교수실천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더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5년 단위별 시간흐름에 따른 연구를 보면 2011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구영역은 학습동아리 조직 및 운영영역 7.5%(8편)과 네트워킹 영역 11.3%(12편)이다. 이는 학습동아리 조직의 경우 2000년대 기업들이 학습조직에 대한 관심의 결과가 논문발표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네트워킹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외국사례에 대한 관심이 논문발표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과목 연구영역별 분포분석 결과 필수과목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62.1% 33편). 필수 과목중 평생교육경영론이 34.1%(181편)과 평생교육론이 19.7%(105편)으로 나타났다. 실천영역 대부분의 과목들에 대한 연구는 2%-3%정도로 발표되었다. 선택과목중 방법영역의 경우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이 4.6%(24편), 지역사회학교론이 4.2%(22편)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과목들의 경우 발표된 논문은 1%-2% 정도로 나타났다. 필수과목에 대한 연구논문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2009.8.11.)에 따라 선정된 필수과목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학습해야 할 과목으로 지정할 때 이전부터 평생교육경영론(제도,평가), 평생교육론(이념,흐름,이론)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서 필수과목으로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든 그렇지 않든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것은 논문발표수를 볼 때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평생교육방법론과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과목의 경우 필수지정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논문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앞으로 이들 과목과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실천영역과 방법영역 교과목들의 경우 발표된 논문수가 없는 과목들도 많이 있으며 발표된 논문수도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과목들이 인접학회가 있어서 인접학술지에서 논문들이 발표된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론의 경우 특수교육학회, 교육사회학의 경우 교육사회학회, 교육공학의 경우 교육공학회, 인적자원개발론의 경우 산업교육학회, 인력개발학회, 상담심리학의 경우 상담심리학회 등이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평생교육학연구에 이러한 과목들과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지 않고 평생교육의 고유영역인 필수과목과 관련된 연구논문들 위주로 발표된 것이 평생교육학연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평생교육기관형태별 발표된 논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대상기관을 정확히 정하여 연구된 논문들은 3%이하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떤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부설형인 대학부설에 대한 연구가 7.7%(41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한 연구가 어느정도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년단위 시간흐름에 따른 특징의 경우 시민단체 부설에 대한 연구와 원격형태 교육기관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평생교육기관형태중 부설형, 독립형, 전담형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발달단계별 발표된 논문 분석결과 특별한 대상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연구가 67.9%(361편)로 가장 많았다. 대상층이 정해진 경우 성인에 대한 연구 논문이 24.8%(131편)이 가장 많았다.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의 경우 연령대상층별로 모두 학술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표된 논문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평생교육이란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대상층을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 특성별로는 여성이 5.8%(31편)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은 0.3%(2편),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0.9%(5편)으로 나타났다. 대상특성별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모두 5% 미만으로 발표된 논문이 매우 적었다. 앞으로 평생교육학연구 학술지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제언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평생교육학연구’ 방향이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법을 통해 제정된 각종 정책들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한 비형식교육기관과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이수과목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

다.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2~2007)에서는 평생학습 기회 확대, 지역평생학습 문화진흥, 취약계층 평생학습 강화, 평생학습 기반 강화, 일터의 학습조직화를 강조하였다.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8~2012)에서는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강조하였으며, 제3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까지 연구된 다른 학회의 학술지를 함께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관련 연구동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평생교육관련 인접 학술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학술지인 ‘Andragogy Today’, ‘열린교육연구’, ‘평생학습사회’ 등 평생교육 관련학회지에서 같은 기간동안 발표된 논문을 분석해 봄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평생교육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평생교육학연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평생교육관련 저서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분야나 대상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전체 평생교육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 그 흐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논문에 적용된 분석 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평생교육실천연구영역별,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대상별 3가지 틀 외에 다른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 활동에 대한 연구는 평생교육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계획 단계부터 합리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평생교육학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학연구’ 20년 연구동향에 대하여 다른 분석틀을 통하여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분석틀을 달리 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곽삼근, 박현옥, 김현주(2014). 대학평생교육 연구동향분석:1989~2012년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1), 63-92.
- 곽삼근, 최윤정(2005). 학술지를 통해 본 한국 평생교육학의 연구 동향. **평생교육학연구** 11(1), 91-111.
- 김두영, 박원희, 김호연(2013). 일반교육학 분야와 특수교육학 분야의 평생교육 연구동향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7(4), 251-274.
- 김영석(2014). 평생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2000-2013): 『평생교육학연구』와 『Andragogy Today』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3), 135-166.
- 김용현, 정기수(2013). **평생교육방법론**. 과주: 양서원.
- 김진화(2008). **평생교육방법 및 실천론**. 서울: 서현사.
- 김진화, 고영화, 성수현(2007).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13(4), 89-122.
- 박양주, 우영희(2012). 국내 교육공학분야의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적용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교육공학연구** 28(2), 263-287.
- 이석진, 기영화, 김남숙 (2012).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위논문 동향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8(4), 65-85.
- 이지연(2013). 한국 성인교육학의 연구동향 고찰 : ‘Andragogy Today’와 ‘평생교육학연구’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16(3), 185-209.
- 정수연(2014). 지역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학술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미, 양용칠(2005). 『교육공학연구』 20년 연구 흐름 분석. **교육공학연구** 21(4), 167-194.
- 최운실, 백은순, 최돈민(1993). **한국사회교육의 과거·현재·미래 탐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은수, 김성길, 허영숙, 박진홍(2009). 한국성인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Andragogy Today’를 중심으로 = Research Trends and Tasks of Korea’s Adult Education: With a Focus on ‘Andragogy Today’. **Andragogy Today** 12(4), 167-183.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Poldner, E., Simon, P. R. J., Wijngaards, G., & van der Schaaf, M. F. (2012).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dures to analysis student's reflective essays: A methodological review of psychometric and edumetric aspects. *Educational Research Review*, 7(1), 19-37.

· 논문 접수 2015. 5. 06 / 수정본 접수 6. 10 / 게재 승인 6. 19

· 윤옥한: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국민대학교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1991년 대림산업 인력개발팀에 입사 이후 인적자원개발, 교육체계 수립, 교육컨설팅 일을 하다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주)하이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였음. 2013년에 국민대학교 교육학과에 임용된 이후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Abstract*

**Analysis of Trend of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for 20 years (1995~2014)**

**-Mainly based 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Yoon, Ok Han(Kookm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 of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for 20 years mainly based 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a total of 531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research paper on lifelong education is increasing. Second, the paper about theoretic studies of lifelong education is the most prevalent, followed by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Third, my analysis about lifelong educator certification subject of completing each research area shows that the paper about compulsory course is the most prevalent. Fourth, according to my analysis of papers announced for each type of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the research papers that exactly decide a target institution for study are less than 3 percent. Fifth, according to my analysis of papers announced for each developmental stage of lifelong education, the research paper without definite subject is the most prevalent. The task presented by this study suggested that analysis frame should be diversified and journals for analysis should be expanded when analyzing trend of research.

\*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research, Lifelong education paper, Lifelong education research trends